

‘힐러리 옷’ 일반인도 입는다

한인디자이너 수자나 정 포레스트

얼마전 베벌리힐스의 한 유명부띠끄에 보기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아침 일찍부터 매장앞에는 가나긴 줄이 이어졌다. 20대 젊은 여성부터 나이 지긋한 중년여성까지 인종을 가리지 않고 각지에서 여성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이곳은 ‘수자나 베벌리힐스’. 세계 최고여성들만 입는다는 한인 디자이너 수자나 정 포레스트의 고급수트 ‘샘플

세일’이 있는 날이었다. 하루종일 기다려 옷을 손에 넣은 ‘보통여성’들은 저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의 풍경은 행사를 마련한 수자나 정씨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그는 ‘힐러리의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고급수트를 전담하다시피 하

를 입는다’는 영광을 안았지만 자신의 옷을 로망으로 여기는 ‘보통여성’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가격을 대폭 내려 ‘샘플세일 이벤트’를 개최한 이유였다. 그리고 물려든 일반 고객들을 보면서 그는 다시금 결심을 굳히게 됐다.

“그동안 성공한 여성들만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파워풀한 여성으로 돋보이는 옷들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전 ‘성공하고싶은 여성’들도 만나려고 해요. 수자나의 옷을 입고 성공을 꿈꾸고



수자나 정 포레스트는 세계 최상류층 여성들만 입는 고급수트를 만드는 유명 디자이너다.



수자나 부띠끄 기성복라인 런칭 젊은 여성용 고급수트 내년 첫선

는 최고레벨의 디자이너이다. 그의 고객 리스트에는 내로라하는 전세계의 상류층 여성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있고 주류 언론에도 수많은 등장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가 만드는 맞춤정장은 한벌에 4000달러를 넘는다. 6000달러 짜리 옷도 드물지 않다. 보통 여성들이 입기엔 쉽지 않은 고급품들이다.

하지만 수자나 정씨는 늘 뭔가 아쉬웠다고 했다. ‘성공한 여성은 수자나

자신을 더욱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그는 한인여성들을 비롯한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수자나’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800달러 내외의 기성복 라인을 런칭할 계획이다.

수자나 정씨는 “젊은 여성들은 왜 ‘섹시’하게만 입어야 하나. 힐러리와

유명인사들처럼 성공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나 부띠끄의 옷은 젊은 여성들이 사랑하는 최상류층 CEO여성들이나 억만장자 부인들이 즐겨 입는다. 매일처럼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미팅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느리는 여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옷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만장자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부인을 직접 데리고 와 옷을 맞춰가기도 한다.

힐러리와는 지난 2007년 대선캠페인 당시 인연을 맺어 3년째 옷을 만들어주고 있다. 해외순방이 잦은 국무장관 스케줄에 맞춰 행사지마다 딱 들어맞는

컨셉으로 옷을 제작한다. 지금은 해외 스케줄이 잡히면 아예 국무장관 스태프에서 행사선지와 예정행사등을 알려준다고, 수자나 정씨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안할 만큼 믿음이 쌓였다”고 전했다.

수자나 부띠끄는 베벌리힐스 샌타모니카 플라자 선상에 위치해 있다. 한 인터우에서 활서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우회전하면 샌타모니카에서 좌회전하면 두블러지나 만난다.

주소: 9647 Santa Monica Blvd, Beverly Hills

문의: (310)276-7510
알려진 최 객원기자